



그리스도의 대업에서 용감한 사람이 됨

“나는 그리스도의 대업을 사랑합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1838년 10월, 미주리 주 북부에 살고 있던 성도들, 그리고 지역 폭도와 민병대 간의 갈등이 극한점에 다다랐다. 10월 27일, 미주리 주 린번 더블류 보그스 주지사는 주 민병대 사령관에게 악명 높은 명령을 내렸다. “물론들은 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공공의 평화를 위해 미주리 주에서 근절하거나 추방해야 한다. 그들의 난폭함은 형언할 수 없다.”¹ 3일 후, 무장한 대규모 민병대가 교회 본부가 있는 미주리 주 파웨스트 근처에 주둔하여 도시를 공격할 준비를 했다.

후기 성도들의 안전을 크게 염려한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은 평화 협상을 위해 10월 31일에 민병대 장교들과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이 민병대 진영으로 다가가는 동안 선지자와 동료들은 느닷없이 체포되었다. 그 후 그들은 진영으로 끌려갔고 보초들이 떠들면서 그들에게 퍼붓는 저주를 들으며 얼음처럼 차가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밤새 바닥에 누워있어야 했다. 장교들이 수감자들을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로 데려가기로 결정을 내리자, 조셉과 동료들은 가족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했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았으며, 그들은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람들이 우리를 총살하여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 적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멀리 데려갈 때, 인간의 탈을 쓴 괴물들에 둘러싸인 아내와 아이들을 뒤로 하고 그들이 어떻게 생필품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채 떠나야 했던 당시



미주리 주 리치몬드에서 수감되어 있던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 시간 동안 간수들이 성도들을 공격한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들었다. 갑자기 조셉 스미스가 일어서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의 참담한 느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내 아내는 울었으며 아이들은 보초가 총으로 그들을 떼어 놓을 때까지 내게 매달려 있었다.”²

인디펜던스에 잠시 억류된 후, 선지자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 몇몇은 미주리 주 리치몬드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낡은 통나무집에 감금되어 사슬로 묶여 있었으며, 많은 간수들이 그들을 감시했다. 선지자는 리치몬드에 있는 감옥에 3주 가량 투옥되어 있다가 미주리 주 리버티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비록 상황은 냉혹했지만, 선지자는 리치몬드에 도착한 직후 에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슬에 묶인 채 엄격한 간수들이 지키는 수감자들이 되었소 … [조지 더블류] 로빈슨 형제는 내 옆에 사슬로 묶여 있소. 그는 참된 마음과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옆에는 [라이만] 화이트 형제, [시드니] 리그돈 형제, 하이럼 [스미스], 팔리 [피 프렛], 아마사 [라이만]이 각각 쇠사슬로 묶여 있지만, 또한 영원한 사랑의 끈으로 함께 묶여 있소. 우리의 마음은 즐거우며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헤아림을 받는 것에 대해 기뻐하오.”³

기나긴 추운 어느 날 밤, 바다에 누워 있던 사람들은 간수들이 약탈, 강간 및 살인을 포함하여 최근에 성도들을 공격한 일에 대해 자랑하는 소리 때문에 자정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팔리 피 프렛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간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너무도 놀랍고 소름끼치고 분한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간수들을 꾸짖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조셉 옆에 누워 있었고 그가 깨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나 다른 어느 누구에게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그가 일어서더니 마치 천둥 같은 목소리로, 포효하는 사자처럼 외쳤다.

“조용히 하라!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조용히 하라. 나는 단 한 순간도 더 그런 말을 듣지 않겠노라. 그러한 말을 그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든 나든 즉시 죽으리라!”

“그는 말을 멈추었다. 그는 매우 위엄 있는 태도로 똑바로 섰다. 족쇄에 묶이고 무기조차 없었지만 그는 조용하고 냉정하며 천사처럼 위엄 있는 모습으로기가 죽어 있는 간수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에는 들고 있던 무기를 내리거나 바닥에 떨어뜨린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무릎은 후들거렸으며, 구석에 웅크리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용서를 빌며 교대 시간까지 조용히 있었다.”⁴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용감한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한다.

1839년 9월, 성도들이 일리노이 주 나부 시를 건설하는 어려운 일을 시작하고 있을 때, 선지자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이곳에 있는 교회의 상태에 대해 말하자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곳에는 이미 상당수의 가족들이 모여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모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가 겪은 역경과 처해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아픈 사람의 비율이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바와 우리를 옹호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으로, 우리는 모든 선하고 유익한 일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울에 달아 보러 올 때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⁵

1842년 9월, 선지자는 교회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으며, 그것은 후에 교리와 성약 128편 19, 22절에 기록되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기쁨의 소리! 하늘에서 온 자비의 소리요, 땅에서 솟아난 진리의 소리요, 죽은 자를 위한 좋은 소식이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기쁨의 소리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라 … 형제들아, 이 위대한 대업에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겠느냐? 전진하고 물러서지 말라. 형제들아, 용기를 내라.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자.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⁶

선지자는 1831년에 교회의 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수행해야 할 일의 정도에 맞는 권능을 주셨으며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경주에 필요한 힘,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은혜와 도움을 주셨습니다.”⁷

용감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업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저는 그리스도의 대의와 미덕, 순결, 올바르고 한결같은 행동,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사랑합니다.”⁸

“저는 하나님 앞에서 유덕하고 올바르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믿으며 제 온 힘을 다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여 그들이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의로움으로 자신들의 죄를 사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⁹

“축복 받은 예수님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하는 모든 훌륭한 자질들을 더하여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 왕국에서 받을 보상이 크다는 것을 앞으로써 환란 중에서도 충실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의로운 생활을 하여 주님과 같은 보상을 받도록 합시다!

“... 의로움은 매사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교리와 성약]이 출판될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위대한 것들이 기대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눈으로 선행하고 의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보상하실 때 여러분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여러분이 많은 환란을 겪고 난 후에 오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간구합니다. 이 축복은 끝까지 충실한 자들의 영혼에 흡족하게 주어질 것입니다.”¹⁰

“지금부터 진리와 의가 여러분 안에 퍼져 거하게 하십시오. 매사에 절제하십시오. 술과 욕, 그리고 모든 저속한 언어, 불의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 적대감, 미움과 탐욕, 거룩하지 않은 모든 욕망을 삼가하십시오. 서로에게 정직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무자비해 보이며, 탐욕을 부립니다. ... 하나님은 그런 성품들을 싫어하시며, ...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슬퍼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시온은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살아날 것입니다.”¹¹

“인간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덕과 거룩함과 주님의 계명을 위해 신실하게 노력할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선하고 현명하며, 공의롭고 대범한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항상 선한 행실이 가득하며 자애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건강과 평안,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이 영원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헌신적인 형제요 친구인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¹²

“은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순결하며, 악을 선으로 대하십시오. ...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겸손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욱 더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입니다.”¹³

“우리는 형제들에게 빛의 자녀들과 낮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기 위해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담대히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이름으로 모든 악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¹⁴

용감한 사람들은 이 생을 사는 동안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모든 사람이 포도원에서 보인 근면과 인내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줌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켜 다른 재능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그분의 종들의 행위를 보고받고자 앉으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마태복음 25:21)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하나님의 신성한 요건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든 멀리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누리도록 허락받은 모든 축복을 얻기 위해 하늘에 의존해야 하며 자신들에게 부여된 모든 기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형제 여러분, 종들에 대한 구주의 비유에서 주인은 그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각기 여러 달란트씩 나누어 주고 그가 잠시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그 돈을 불리게 하였으며,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불러 결산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14~30 참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잠시 동안만 다른 곳에 가 계시며, 마지막 날에 그분은 각 사람에게 보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열 달란트를 요구 받을 것이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은 무익한 종으로 내어 쫓기는 반면, 충성된 종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유혹의 때에 넘어지지 않고 박해의 때에 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의 은혜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¹⁵



“아무것도 발전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무익한 종으로 내어 쫓기는 반면,
충성된 종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후에 여러분은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걷는 것은 바람직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빛과 지혜를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¹⁶

**용감한 사람들은 끝까지 충실하게 견디며
해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결의에 차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해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된 안식을 취하도록 대업을 보존하고 끝까지 충실하도록 돕습니다.”¹⁷

“충실한 자들을 위해 마련된 왕관을 얻기 위해, 시험이 끝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디모데후서 4:7~8 참조)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후하게 받은 것에 충실하십시오. 그리하여 새롭게 되는 때가 오면 여러분은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니게 되며, 모든 노고로부터 편히 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충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¹⁸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진다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인내는 천상의 것이며, 순종은 고귀하고, 용서는 자비로우며, 승영은 신성합니다. 끝까지 충실한 자들은 결코 자신의 보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멸망한다 해도 모든 것을 견뎌 낼 것입니다.”¹⁹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xii쪽을 참조한다.

- 330~331쪽에서 간수들을 꾸짖는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읽는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조셉 스미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가?
- 조셉 스미스는 복음이 “기쁨의 음성”이라고 했으며,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353쪽)라고 선언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시련의 시기에 “크게 기뻐하도록” 돕는가?
- 352쪽 셋째 단락을 읽는다. “수행해야 할 일의 정도에 맞는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이 진리를 잘 나타내는 어떤 예를 기억할 수 있는가?
- 352쪽 셋째 단락 전체를 복습한다. “그리스도의 대업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몇 가지 예를 위해 352~354쪽을 참조한다.)
- 354~355쪽에 있는 선지자 조셉의 권고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한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할지 정한다.

- 본 장의 마지막 두 단락을 복습한다.(356쪽)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가?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아주 훌륭하게”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설득하려 하는가? 우리는 그러한 압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관련 성구: 신명기 31:6; 디모데후서 1:7~8; 니파이후서 31:19~20; 모사 이야기서 5:15; 교리와 성약 59:23

주

1. 릴번 더블류 보그스, *History of the Church*에서 인용, 3:175: 존 비 클라크에게 내린 명령에서 발췌, 1838년 10월 27일, 미주리 주 제퍼슨시티.
2. *History of the Church*, 3:193: “Extract, from the Private Journal of Joseph Smith Jr.”에서, *Times and Seasons*, 1839년 11월, 6쪽.
3. 조셉 스미스가 에머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38년 11월 12일, 미주리 주 리치몬드; 그리스도 공동체 기록 보관소,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
4. Parley P. Pratt,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Parley P. Pratt Jr. 편집(1938년), 210~211쪽.
5. *History of the Church*, 4:8~9: 괄호 안의 말씀은 원문에 있음; 현대화된 문법; 단락 구분 변경; 조셉 스미스가 아이작 갠런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39년 9월 11일, 일리노이 주 커머스.
6. 교리와 성약 128:19, 22; 조셉 스미스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1842년 9월 6일, 일리노이 주 나무.
7. *History of the Church*, 1:176: “History of the Church”(원고)에서 발췌, book A-1, 118쪽, 교회 기록 보관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8. 조셉 스미스가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에게 보낸 편지, 1832년 7월 31일, 오하이오 주 하이럼; Joseph Smith, *Collection*, 교회 기록 보관소.
9. 조셉 스미스가 Chester County Register and Examiner의 편집인에게 보낸 편지, 1840년 1월 22일, 펜실베이니아 주 브랜디와인; 원본 개인 소장; 편지는 1840년 2월 11일자 *Examiner*에 게재됨.
10. *History of the Church*, 2:229~230, 각주; “To the Saints Scattered Abroad”에서, *Messenger and Advocate*, 1835년 6월, 137~138쪽.
11. *History of the Church*, 3:233; 조셉 스미스가 미주리 주 콜드웰 군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38년 12월 16일, 미주리 주 리버티, 리버티 감옥.
12. *History of the Church*, 5:417; 조셉 스미스가 브리검 영에게 발행한 추천서에서 발췌, 1843년 6월 1일, 일리노이 주 나무.
13. *History of the Church*, 6:411; 1844년 5월 26일,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토머스 볼클이 보고함.
14. 조셉 스미스와 대제사들이 뉴욕 주 제네서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 1833년 11월 23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교회 기록 보관소.
15. *History of the Church*, 2:6, 23~24; “The Elders of the Church in Kirtland, to Their Brethren Abroad”에서, 1834년 1월 22일, *Evening and Morning Star*에 게재됨, 1834년 2월, 135쪽; 1834년 4월, 152쪽.
16. *History of the Church*, 4:606; 1842년 4월 28일,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엘리자 알 스노우가 보고함; 또한 부록 540쪽 제 번째 항목 참조.
17. *History of the Church*, 1:450; 조셉 스미스가 에드워드 파트리지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33년 12월 5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18. 조셉 스미스와 존 휘트머가 뉴욕 주 콜스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1830년 8월 20일,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 Newel Knight, *Autobiography and Journal*, 약 1846~1847년 경, 129~130쪽, 교회 기록 보관소.
19. *History of the Church*, 6:427;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가 아버지 듀크스베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44년 6월 4일, 일리노이 주 나무; 아버지 듀크스베리(Tewksbury)의 성이 *History of the Church*에는 “Tewkesbury”로 잘못 기재되었음.